

〈사씨남정기〉를 통해 본 소설사의 전변의 한 국면*

- 사씨 형상의 형성배경과 의미

류준경**

1. 들어가며
2. 김춘택이 파악한 <사씨남정기>
3. 사씨 형상의 연원
4. 사씨 형상의 특징과 의미
5. 사씨 형상의 변주
6.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17세기 소설사 전변의 한 국면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김만중의 국문창작, 김춘택의 한문번역, 그리고 사씨 형상의 수용과 변용 과정 등을 주목하고, 동시에 국문/한문, 여성/남성, 비속/전아 등이 서로 얽히는 과정을 중시하여 17세기 소설사 전변의 한 국면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녀자들이 ‘비속’한 국문소설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중은 부녀자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사씨남정기>를 창작하였다. 여성들이 향유하던 국문소설에 남성의 의도가 결합되어 새로운 국문소설이 출현한 것이다. 동시에 이 국문소설은 상층 남성의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전의 비속한 국문소설과 다르게 문체와 내용면에서 ‘전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김만중이라는 작가의 문화적 배경과 당대 시대상, 그리고 소설이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라는 장르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씨남정기>는 여성 교화라는 상층 남성의 의도를 실현하는 국문소설 이상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 김만중의 ‘여성시’를 검토하면, 버려진 여성 혹은 입을 그리워하는 여성에게서 가장 근원적인 도덕심이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학적 인식이 작동하여 <사씨남정기>의 사씨를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을 구현하는 인물로 형상화하게 되었다. 단순히 예의범절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여인을 넘어서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이상적 인간형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여성 인물 형상의 창출에 한문학[여성시] 전통 속에서 마련된 여성의 이미지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사씨남정기>의 사씨가 담지한 이상적 면모로 인해, 김춘택은 <사씨남정기>를 여성을 위한 국문소설로만 남겨둘 수 없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남성에 의한, 여성 교화를 위한 작품이 남성에 의한 남성의 세계인식을 표현한 작품으로 전변한 것이다. 그런데 한시와 달리 소설적 형상화는 새로운 문제를 담지하게 된다. 사씨의 형상화 과정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른 도덕 원칙의 내면화와 그 원칙의 주체적 구현 과정이 드러남으로써 도덕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형식은 드러났지만, 가부장제 질서를 인정하는 한 여성의 주체적 도덕 원칙이 불가능하기에 도덕적 주체성의 내용적 모순성 또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는 소설이라는 장르 특성 상 당대 현실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에, 아내의 자리에서 이상적인 도덕 주체를 구현하려 한 김만중의 의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김만중이 형상화하고 김춘택이 강화한, 이상적 도덕 주체인 사씨의 형상은 김춘택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통속적으로 향유되었다. 사씨 형상의 영향이 강하게 감지되는 <창선감의록>의 남채봉과 사씨를 비교할 경우, 남채봉의 형상에서 보편적 주체의 면모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18세기 말 상층사대부의 <사씨남정기> 향유기록에서도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한 사씨의 면모를 주목하지 않았다.

핵심어: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김만중, 김춘택, 여성과 남성, 국문과 한문, 비속과 전아

1. 들어가며 - 17세기 소설사와 <사씨남정기>의 자리

우리 소설사의 전변을 조망하는 자리에서 가장 크게 문제될 시기는 아마도 17세기일 것이다. 17세기가 소설사 전개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임은 고전소설 연구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이다. 서구의 일반적인 관점과 달리 우리 소설 연구에서는 소설을 시민계급의 장르로 파악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전소설은 국문과 한문, 여자와 남자, 하층과 상층, 시민과 귀족, 장편과 단편, 통속과 진정, 비속과 전아 등이 얽히고설킨 채 서로 대결·화합하는 곳이었다. 특히 17세기는 이러한 다양한 대립적 자질들이 서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가장 크게 각축을 벌이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각축의 결과 18세기에 들어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국문 장편소설이 소설사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¹⁾

하지만 여성 독자층의 국문 장편소설이 소설사의 주류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소설사에서 여성/국문/장편이 남성/한문/단편에 대해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여성이면서 남성이고, 남성이면서 여성인 성격, 한문이면서 국문, 국문이면서 한문인 성격이 그 속에 녹아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과정에서 이들 대립적 자질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존재를 녹여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편소설이 형성되는 가운데 ‘한문과 국문’, ‘남성과 여성’, ‘단편과 장편’이 어떻게 얽히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온당하게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구운몽>, <창선감의록>에 그 논의가 집중되어, 傳奇소설이나 중국의 통속소설 등과 관련 속에서 창작의 경로나 특징에 논의되었다.²⁾ 그

1) 소설은 대중적 성격을 그 기본속성으로 한다. 여기서 소설사의 주류라는 말은 그 점을 중시한 것이다. 남성, 한문, 단편의 속성을 지닌 수준 높은 작품들 역시 소설사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2)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박사논문, 1992, 1~284면;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연구』, 월인, 1998;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241~270면;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런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 <구운몽>, <창선감의록>을 한문으로 창작한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남아있는 이본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 역시 기본적으로 <구운몽>, <창선감의록>의 한문 창작설을 보다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³⁾ 이에 비해 <사씨남정기>의 경우만, 金春澤의 <飜譯南征記引>으로 인해 국문으로 창작된 것이 분명히 확인될 뿐이다. 이 경우도 만약 김춘택의 서문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현재 남아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할 때, 한문본 선행설이 보다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국문 원본의 모습을 비교적 온전하게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단 2종뿐이고, 그것마저도 국문 원본이 아닌 그 漢譯과 한역본의 국문재번역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⁴⁾

그런데 김춘택이 <사씨남정기>를 번역하면서 <번언남정기인> 및 <凡例>를 남긴 것의 의미는 단순히 <사씨남정기>가 김만중에 의해 국문으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번언남정기인>은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이유와 그가 읽은 <사씨남정기>의 의미 등도 아울러 알려준다. 이는 국문/한문 및 여성/남성의 엇빚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성독자를 위한 국문소설 창작의 상황과 남성독자를 위해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번언남정기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씨남정기>를 통해 이 시기 소설사 전반의 특징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번언남정기인>에서 제시하는 <사씨남정기>의 창작동기와 작품의 주제 및 의미 등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김만중의

둘베개, 2005 등.

- 3) <구운몽>, <창선감의록>의 이본과 그 계통에 관해서는 정규복, 『<구운몽>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 지연숙, 『<구운몽> 텍스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1, 26~62면 ; 정길수, 『<구운몽> 원전의 탐색』, 『고소설연구』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5~33면 ; 이내중, 『<창선감의록> 이본고』, 『송설어문』10, 1993, 237~267면 ;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 박사논문, 2003 등 참조.
- 4) 국문원본계열의 대표적 작품 2종은 연세대도서관 소장 <白蘋洲重逢記>와 장서각 소장 <남정기>를 말한다. <사씨남정기> 이본들의 계열과 그 특징에 관해서는 부세, 『<남정기> 한문본고』, 『백영 정병욱 환갑 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1982, 660~673면 ; 이금희, 『<사씨남정기> 이본 연구』, 반도출판사, 1991 ; 이래중,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19, 대동한문학회, 2003, 369~399면 ; 지연숙, 『<사씨남정기> 비김춘택 계열 연구』, 『고소설연구』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39~71면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문학적 경향을 검토한 다음, 사씨의 형상을 중심으로 국문문화/한문문화, 남자/여자, 통속/진정 등이 서로 얽히는 구체적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사씨남정기>의 사정옥[사씨]과 <창선감의록>의 남채봉의 비교를 통하여 문학사적 변주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소설사 전변의 한 국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김춘택이 파악한 <사씨남정기>

김춘택(1670~1717)은 제주도 유배(1706~1710) 중이었던 1709년에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한다. 그때의 정황과 번역의 서문은 <囚海錄> 論詩文條에 실려 있다. 이 서문은 김만중이 <사씨남정기>를 국문으로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 소설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그와 동시에 김만중의 창작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당대 최고의 문인 학자였던 김춘택이 크게 공을 들여 한문으로 번역하고, 서문에서 金萬重의 창작동기와 자신의 번역동기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사씨남정기>가 지닌 다층적 의미망을 증언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할 지료이기도 하다.

김춘택의 <번언남정기>에서 전하는 내용 중 소설사적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김만중은 여항의 부녀자가 쉽게 읽고 감명 받을 수 있도록 <사씨남정기>를 창작하였다는 점이다.⁵⁾ 이는 여성독자를 염두에 두고 소설을 창작하였음을 알리는 증거이다. 동시에 그는 다른 패관소설과 달리 황당[荒誕]하지도, 늘어지지도[浮靡] 않으며 문장은 精彩가 있었다고 하였다.⁶⁾ 황당무계성과 난잡성은 이 시기에 여성들이 읽던 국문소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비문화적 특징으로 이야기성 짙은 소설들에 대한 언급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곧 구비문화적 속성이 강한, 황당한 서사와 투박한 문장을 보다 합리적 서사와 전아한 문장으로 변모시킨 점을 지칭한 것이다.⁷⁾ 이전 시기 국문소설과 차별되는, 투박함을 전아함

5) 先生之作之以諺，蓋欲使閭巷婦女，皆得以誦讀觀感，固亦非偶然者。(金春澤，〈囚海錄〉，『北軒居士集』 권16，『한국문집총간』 185，228면)

6) 至稗官小記，非荒誕則浮靡，其可以敦民彝裨世教者，惟〈南征記〉乎！／先生特以其性情思致之妙而有是書，故於諺之中，猶見詞采，今愚所翻，反有不及焉者。

으로, 구비성을 문자성으로 변모시킨 <사씨남정기>의 의의를 분명하게 짚고 있는 것이다.⁸⁾

둘째, <사씨남정기>는 기본적으로 가정 내의 부부와 처첩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씨의 節行, 유연수의 改過, 교씨와 동청의 惡行 - 이 세 가지 축으로 제시된다는 사실을 밝힌 점이다.⁹⁾ 이는 <사씨남정기>가 기본적으로 부부와 처첩간의 일을 다룬 작품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이기에, <사씨남정기>의 기본적인 성격이 ‘가정소설’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동시에 작품의 핵심적인 서사축 이해의 기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작자와 표기문제를 제외하고 소설의 내용과 관련한 위의 언급은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서문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작품을 분석하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춘택의 시각과 관련하여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의 언급이다. <사씨남정기>는 부부와 처첩간의 일을 사씨의 절개, 한림[유연수]의 개과, 교씨의 악행이라는 세 가지 서사축으로 구현하여 독자들에게 감명과 경계를 주는 작품이라고 언급하고서는,

이뿐이 아니다. 유추하여 의미를 따져본다면 사람을 교화하지 않는 바가 없

7) 이전시기 국문소설이 문어적 성격보다 구어적 속성이 강했던 경향은 洛西居士의 <五倫全傳序>에서 국문본에 대해 “措辭荒拙, 敘事舛錯”이라 언급한 부분이나 <설공찬전>의 국문 번역본인 <설공찬이>의 존재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정길수, 『한국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2005, 38~43면 참조)

8) 최근의 <사씨남정기> 연구에서 김만중이 부녀자를 위해 국문으로 창작한, 기본적인 창작 동기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씨남정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해방식은 선악대비를 통해 악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심성론적 바탕으로 선악구조를 드러낸 작품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 작품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그 이해의 방식에서 부녀자를 위해 창작한 창작의도와 관련된성에 제대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사씨남정기>의 보다 ‘심층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혹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창작의도와 ‘심층적 의미’의 관련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아야 작품의 의미가 보다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사씨남정기> 이해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고소설연구』6, 1998, 217~245면;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인식』, 『배달말』27, 배달말학회, 2000, 371~396면; 신재홍, 『<사씨남정기>의 선악구조』, 『한국문학연구』2,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 175~217면;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12, 2001, 135~142면 등 참조)

9) 其事則以人夫婦妾之間, 然讀之者, 無不咨嗟涕泣, 豈非感於謝氏處難之節·翰林改過之懿, 皆根於天具於性而然者, 其憤痛裂毗, 又豈不以喬·董之惡哉!

다. ‘쫓겨난 신하와 원망하는 아내가 임금과 남편과 함께 서로 천성과 인륜을 서로 계발한다’는 점에서 『楚辭』와 같고,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발하고 흐트러지려는 뜻을 경계한다’는 점에서는 또 『詩經』에 가까우니, 이 어찌 다른 소설과 한 자리에서 논할 수 있겠는가!¹⁰⁾

라고 하였다. 일견 <사씨남정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楚辭』와 『詩經』에 비견할 만큼 훌륭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추하여 의미를 확장한다’[推類引義]라는 언급이다. 김춘택은 <사씨남정기>의 서사가 비록 부부처첩간의 일이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부부처첩간의 문제가 아니라 『楚辭』와 『詩經』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윤리성[天性民彝]으로 확대된다고 하였다. 실제 김춘택이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한 이유는 바로 이 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김춘택은 <사씨남정기>에서 부녀자에 한정되는 윤리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성을 주목하였던 것이다.¹¹⁾ 부녀자의 일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부녀자와 관련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해한 것이다. 동시에 김춘택은 이 점을 보다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여 자신이 한문으로 번역한 일의 의의와 정당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서문의 마지막 구절이다.

10) 不惟如是。推類引義，將無往而非教人者，所謂放臣怨妻與所天者，天性民彝，交有所發，則如<楚辭>，所謂感發人之善心，懲創人之逸志，則又庶幾乎<詩>，是烏可與他小說同日道哉!

11) 유배되어 있는 김춘택의 처지와 관련하여 본다면, 보편적 윤리성보다 버려진 신하의 우의로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쫓겨난 신하의 충절의 맥락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정길수, 『<남정기>의 창작 동기와 작자 문제』, 『인문학연구』 43집, 조선대인문학연구소, 2012 262면.) 특히 김춘택이 <남정기>를 한역하기 1년 전인 1708년에 <별사미인곡>을 창작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김춘택이 읽은 <사씨남정기>의 의미를 군신관계의 우의로만 제한하기는 어렵다. 방축된 신하의 충절을 포함하는 보다 보편적인 윤리성으로 이해해야 마땅할 것이다. 방축된 신하의 충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제한하게 되면 버려진 존재로서 현실에 대한 원망이나 구원의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경우 김춘택(혹은 김만중)은 유배 속에 울분을 지닌 사람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도 김춘택이 <사씨남정기>를 초사뿐 아니라 시경에 비의하고 있는 점이나, 직접 인용하고 있는 주희의 『楚辭集注』의 구절과 『論語集註』에 나오는 구절이 모두 보편적 윤리성[三綱五倫, 性情之正]을 지칭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然使世之放臣·屏子·怨妻·去婦，扶掖諷諭於下，而所天者幸而聽之，則於彼此之間，天性民彝之善，豈不足以交有所發，而增夫三綱五典之重(《楚辭集注》)；凡詩之言，善者可以感發人之善心，惡者可以懲創人之逸志，其用歸於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論語集註》) 이 점은 다음 장에서 김만중의 애정시를 검토하면서 채론하기로 한다.

옛날 사마천이 <굴원전>을 짓고 구양수가 王凝의 아내의 일을 서술하였는데, 그 문장이 서술된 두 사람과 최고의 절의를 다투었기에, 내가 진실로 아름답다고 여겼다. 나에게서는 사씨의 현숙함에 걸맞은 문장이 없지만 서포선생이 책을 지어 사람을 교화한 일을 받들어 서술할 수 있기를 바라노니, 이 의도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¹²⁾

먼저 김춘택은 사마천의 <굴원전>을 언급한다. 굴원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충신의 대명사인데, 김춘택은 사씨의 일을 굴원에 비의한다. 이는 <사씨남정기>를 『초사』에 견주고, 나아가 자신이 한문으로 <사씨남정기>를 번역한 일을 사마천이 屈原을 『史記』에 입전한 일에 견준 것이다. 기실 <사씨남정기> 작품 속에서도 사씨는 굴원에 비견되고 있다.¹³⁾ 작품 내에서도 주인공 사씨가 굴원에 비의되고, 나아가 김춘택 역시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사마천이 <굴원전>을 입전한 일에 비김으로써 자신의 번역 작업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을 요하는 것은 구양수의 저술에 관한 언급이다. 구양수가 서술한 왕씨 부인의 사적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¹⁴⁾ 구양수의 《新五代史·雜傳》의 서문에 기술된 王凝의 아내에 관한 일이다. 구양수가 왕응의 아내의 일을 직접 입전하지 않고 雜傳의 서문에서 언급한 이유는 왕응의 아내의 일이 소설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이었다.¹⁵⁾ 五代시기의 소설에서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양수는 역사로 기록하지 못하고 다만 서문을 통해 그 절의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구양수의 일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김춘택 자신이 <사씨남정기>를 번역한 일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소설인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구양수가 소설에 나오는 왕씨 부인의 일을 역사서에 기록한 것과 동일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곧 자신이 <사씨남정

12) 昔太史公作<屈原傳>, 歐陽子叙王氏婦事。其文與兩人節義爭高, 愚誠美之, 而自無以稱謝氏之賢。然庶幾仰述先生所爲作書教人, 其意非偶然者, 是愚之志也。

13) 사씨가 懷沙亭에서 투신하려는 장면이 이에 해당한다. 굴원이 먹라수에 뛰어든 자리에 세워진 <회사정>에 도착한 사씨는, 귀의할 때 없는 자신의 처지를 굴원에 비기면서, 굴원처럼 먹라수에 뛰어들려 한다.

14) 정길수, 앞의 논문, 263면.

15) 予嘗得五代時小說一篇, 載王凝妻李氏事, 以一婦人猶能如此, 則知世固嘗有其人而不得見也。(<雜傳序>, 《新五代史》 권54, 北京:中華書局, 1997, 611~612면)

기>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구양수가 소설의 내용을 역사서에 기록한 것과 같은 일이며, 동시에 사씨의 현숙함은 굴원의 충절처럼 역사적으로 칭송되어야 할 보편적 윤리성을 띠고 있음을 보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 김춘택의 <번언남정기> 서문의 검토를 통해 김춘택이 주목한 <사씨남정기>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김춘택은 단순히 부녀자의 도덕적 면모만을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라, 보편적 윤리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사씨남정기>를 이해하였던 것이다. <사씨남정기>가 한문으로 기록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남성독자들이 <사씨남정기>를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사씨남정기>의 의미가 여성의 윤리를 넘어 보편적 윤리성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씨의 형상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 지금까지 검토한 김춘택의 시선을 바탕으로 <사씨남정기>와 관련된 김만중의 문학적 경향과 그의 이상적 여성상의 한 모습을 확인하여 사씨 형상의 형성배경을 천착해보도록 하겠다.

3. 사씨 형상의 연원

3.1. 김만중의 문학과 어머니의 형상

김만중의 문학적 경향과 관련하여 그의 ‘女性詩’ 창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의 한시 작품 중에 자연을 읊은 시가 가장 많다는 점이나, <구운몽>이 창작된 그의 유배시기를 주목할 필요성 등으로 자연이나 유배시기의 한시의 특징 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¹⁶⁾ 하지만 김만중의 한시가 당대의 다른 작가들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여성 정감이나 여성을 소재로 노래한 점이며, 동시에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소설을 창작하였

16) 유배시기 시작의 특징과 자연시를 검토한 연구로 김무조, 『서포의 漢詩考-특히 謫中作을 중심으로』, 『우현 정중환박사 환력기념논총』, 1974, 531~551면.; 전형대, 『김만중의 한시 - 그의 자연시를 중심으로-』, 『김만중 연구』, 새문사, 1983; 임평모, 『김만중의 남해 적중시와 죽대정신』, 『문학과 창작』42, 문학아카데미, 1999, 158~166면.; 손찬식, 『김만중의 유배시에 표상된 정서』, 『어문연구』32, 한국어문연구학회, 1999, 241~268면 등이 있다.

으며, 나아가 독특한 여성 캐릭터를 구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자연시’나 ‘유배시’보다 ‘여성시’를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김만중이 여성에 대해 읊은 시는 대략 50여수이다.¹⁷⁾ 이중 상당수의 작품이 시적 자아를 여성화하여 표현한 ‘여성화자시’이고, 여성 인물에 대해 직접 읊은 시도 약 20題정도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¹⁸⁾ 이처럼 여성화자시나 여성인물을 핵심 제재로 한 시를 대거 창작한 점은 당시의 시인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시적 경향이다. 이로 인해 일찍부터 김만중의 여성시적 경향과 소설과의 관련에 주목하여, 때로 호색적 취향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¹⁹⁾ 하지만 그의 삶의 자취는 호색, 풍류와 거리가 멀다. 김춘택이나 김진규의 증언에 따르면²⁰⁾ 여색을 멀리하는 결벽주의적 면모까지 보인다. 곧 자신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애정이나 풍류가 그의 여성시 창작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7세기 한문학적 경향을 주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의 ‘여성시’는 명대 복고주의 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²¹⁾

사실 조선전기까지 한문학적 전통에서 여성 정감의 표현은 예외적인 것이었다. 여성의 한시 창작이 예외적이기도 하지만 사대부 역시 여성에 관해 언급하고 표현하는 것이 드물었다. 예외적으로 ‘戲作’이나 ‘擬古’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될 뿐, 애정이나 여성정감의 표현은 금기시될 정도였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三唐派 시인의 등장으로 여성 정감의 표현이 유행하게 된다. 절구시와 악부를 중심으로 농염한 여성정감을 읊은 작품이 대거 창작된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17세기 시단의 작가들은 삼당파 시인처럼 복고를 지향하면서도 氣勢를 중시하여 여성정감의 과잉이 가져오는 연약함을 경계하여 여성시의 비중을 낮춘다.²²⁾ 그러다 17세기 중후반 김만중에 의해

17) 김병국, 『서포의 김만중의 시세계: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1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49~87면.

18) 윤호진, 『김만중의 여성시에 드러난 군신의 형상』, 『연민학지』14, 2010, 359면.

19) 이가원, 『〈九雲夢〉評考』, 『韓文學研究』, 탐구당, 1969, 182~224면.

20) 김춘택, 『西浦先生遺事別錄』, 『北軒居士集』 권16, 『한국문집총간』 185, 221~222면; 金鎭圭, 『西浦先生府君行狀』, 『竹泉集』 권35, 『한국문집총간』 174, 528~543면.

21) 안대회, 『17세기 비평사의 시각에서 본 김만중의 복고주의문학론』, 『민족문학사연구』20, 민족문학사연구학회, 2002, 8~28면.

22) 안대회, 『18세기 여성화자시 창작의 활성화와 그 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2002, 130~131면.

다시 여성시가 대거 창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만중이 당시의 시적 경향에서 예외적으로 여성시를 대거 창작한 것은 명대 복고주의 문학론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 시기의 많은 작가들 역시 명대 복고주의의 문학론의 영향으로 ‘復古’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김만중은 이 시기 다른 復古의 경향의 작가들과 달리 民歌風의 서정가요를 애호하여 남녀 간의 애정 소재를 선호하였다. 정두경으로 대표되는 작가들이 보였던, 氣勢를 중시한 경향과는 다른 면모였던 것이다.

여성정감을 강조한 김만중의 특징적 면모는 才情을 중시한 何景明, 민간의 시가 진정한 시라는 입장을 보인 李夢陽, 나아가 민간의 사랑노래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李開先 등의 명나라 복고주의 작가들에서 확인되는 경향과 일치한다.²³⁾ 이 점에서 바로 명대 복고주의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명대 복고주의에서 여성을 주목한 방식과 김만중이 주목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제 이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김만중은 38세 금성 유배 중에 李敏迪을 애도하기 위해 400字나 되는 艷詩를 짓는다.²⁴⁾ 그것으로 부족하였는지, 반첩여와 매비의 고사를 읽고 또 다시 이민적을 애도하는 장편 고시(<讀班婕妤梅妃故事, 感而賦之>)를 짓는다. 그 서문에서 김만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갑인년 봄 (...) 이민적이 원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이미 400字的 긴 시를 지어 弔哭하였지만 다시 이 시를 지어 남녀 사이의 일에 가탁하여 앞의 시에서 다하지 못한 뜻을 뵈다. 또 나를 이공에게 결부시킨 것은 남녀와 군신의 정은 彝倫에서 나온 것으로써 처음부터 못생김과 잘생김, 못남과 잘남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²⁵⁾

23) 何景明의 <明月篇并序>, 李夢陽의 <詩集自序>, 李開先의 <市井艷詞序>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문학론과 김만중의 문학론의 관계는 안대회, 『17세기 비평사의 시각에서 본 김만중의 복고주의 문학론』, 17~26면 및 강명관, 『<서포만필>의 민족어 문학론 비판』,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491~494면 참조.

24) <李都憲惠仲挽詞>, 『西浦集』 권1, 『한국문집총간』 148, 12면.

25) 甲寅春, 余以侍從被罪, 謫居金城, 而李都憲惠仲卒於原州. 余既以長篇四百字哭之, 復作此詩, 托之男女之際, 以申前詩未盡之意. 且以竊自附於李公者, 蓋以男女君臣之情, 發於彝倫者, 初無醜好賢不肖之別也. (『西浦集』 권2, 『한국문집총간』 148, 21면)

여기서 그는 군주에게 배척당해 죽은 이민적과 자신의 처지를 남녀 사이에 가탁하여 우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직접적인 조문의 뜻을 드러낸 시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에, 다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여 또 다른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 정감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천자에게 버려진 반첩여와 매비를 통해 이민적과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西浦年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반첩여와 매비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어서 피차[이민적과 자신을 말함-인용자] 겪은 일을 군신과 남녀 사이에 우의하여 “死別과 생이별을 겪지 않고서 인간 세상 부인네의 슬픔 어찌 알리오!”라고 하셨다.²⁶⁾

실제 작품의 한 구절[不見死別與生離, 安識人間婦人悲]을 인용하면서 김만중의 詩作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인용한 구절에서 김만중은 귀양 온 처지에서 또 다른 귀양인인 친구 이민적의 죽음을 겪고 나서야 부인네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君臣之情과 夫婦之情의 동일성을 유배와 이별의 과정에서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군신의 정과 부부의 정에서 부부의 정이 보다 근원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그의 다른 여성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거나, 독수공방의 처지에 있는 여인을 시적 제재로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모두 지조와 절조 있는 여인의 감성을 통해 도덕적 근원성을 드러내고 있다.²⁷⁾ 곧 三綱과 五倫은 모두 불변의 인륜으로 동질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특히 부인이 지니게

26) 有感班姬梅妃詩, 以彼此所遭, 托意君臣男女之際曰 “不見死別與生離, 安識人間婦人悲.”(《西浦年譜》, 서울대출판부, 1992, 287면)

27) <擬古>, <擬烏棲曲>, <少小讀詩禮>, <織女愁獨居>, <望月三章>, <擬四愁詩> 등. 특히 이들 작품 중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를 노래한 <擬古>, <擬烏棲曲> 등 상당수의 작품은 김만중이 유배를 겪기 전에 지은 작품들이다. 김만중의 시작에서 ‘夫婦之情’은 유배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우의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성의 맥락에서 노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배의 과정을 통해 ‘夫婦之情’의 의미가 군신관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심화, 확대되거나 전이되었다고 할 것이다.

되는 이별과 인고의 감정을 통해서 人倫 곧 도덕의 근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별의 아픔과 그 아픔을 견디는 삶을 영위하는 여인은 바로 도덕적 근원을 드러내는 주체가 된다. 여성의 정감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여 性情의 바름[性情之正, 도덕성의 근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성 정감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점은 명대 복고파와 다른, 김만중의 특징적인 면모라고 이해된다. 물론 김만중의 여성 정감이 명대 복고파와 연결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명대 복고파가 여성 정감을 주목한 것은 감정의 근원적 성격 때문이었다. 그들은 詩經과 民歌의 동질성을 지속적으로 운위하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는 점에서, 혹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산된다는 점에서 그 동질적 성격을 주목한 것이다. 김만중이 주목하는 여성 정감의 근원성도 이와 연결된다. 하지만 김만중은 여성 정감의 자연스러움을 윤리적 근원성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夫婦之情이 君臣之情의 우의로 작용하는 것은 夫婦之情이 보다 도덕의 근원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에 따라 보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잘 드러낸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 점을 조금 더 살펴보자.

시는 성정에 뿌리를 두고 나온 것인데, 그 절실하여 쉽게 드러나는 것은 부부 사이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시 삼백편의 첫머리가 <關雎>이고 六義는 風에서 시작한다. 漢魏의 작가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君臣朋友와 관련이 있을 경우, 말을 반드시 부부에 의탁하여 속마음을 펼치거나 감정을 전달하였으니, 그 뜻이 크도다.²⁸⁾

이 글은 흔히 김만중의 문학론과 유사성이 지적되는 何景明의 <明月篇竝序>의 일부분이다. 여기서의 논의는 분명 김만중의 문학론과 상당히 유사하다. 실제로 김만중은 남녀 간의 애정시를 다수 창작하고 비평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²⁹⁾ 하지만 何景明의 이

28) 夫詩本性情之發者也, 其切而易見者, 莫如夫婦之間. 是以, <三百篇>首乎<關雎>, 六義首乎風, 而漢魏作者義關君臣朋友, 辭必托諸夫婦, 以宣鬱而達情焉, 其旨遠矣. (何景明, <明月篇竝序>, 『明詩別裁集』(沈德潛 편), 上海古籍出版社, 1979, 116~117면.)

29) 안대회, 앞의 논문, 21면.

러한 주장은 작품의 분위기 곧 ‘情調’ 혹은 ‘音調’와 관련된다. 실제 이 서문은 歌行體의 詩作에서 두보의 시가 시어의 구사와 안배에서 沈重한 면을 보이기는 하나, 情調에서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情調가 뛰어난 시를 짓고자 하는 바람을 보이고 있다.³⁰⁾ 어디에도 性情之正, 윤리적 도덕성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김만중의 문학적 경향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명 복고파 李夢陽의 <詩集自序>나 李開先의 <市井艷詞序>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몽양의 <시집자서>에서 “진정한 시는 민간에 있다”³¹⁾라고 언급하였고, 이개선은 그의 <市井艷詞序>에서

(시정 노래의) 말뜻은 가슴속에서 바로 나와 꾸미지 않은 것으로, 모두 남녀 사이에 주고받은 정이다. 비록 군신과 친구의 관계라도 이에 가탁하는 일이 많은 것은 그 정이 충분히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풍은 민요에서 나왔으며 진정한 시는 단지 민간에 있을 따름이다.³²⁾

라는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는 분명 김만중이 “여항의 나무꾼과 물 길는 아낙네의 흥얼거리는 소리가 사대부의 시보다 참되다”고 《서포만필》에서 언급한 것과 그 맥이 연결된다. 하지만 이몽양은 가락과 감정의 진정성의 맥락에서 민간의 노래를 주목한 것이고, 이개선의 경우도 농염한 남녀 간의 사랑을 읊조린 노래가사가 드러내는 정감 그 자체에 대해 주목한 것이다. 이에 비해 김만중은 남녀 간의 사랑이 감정의 근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을 철저히 도덕적 윤리성의 맥락에서 이해한다.³³⁾

30) 僕讀杜子七言詩歌，愛其陳事切實，布辭沉著，鄙心竊效之，以爲長篇聖於子美矣。既而讀漢魏以來歌詩及唐初四子者之所爲而反復之，則知漢魏固承<三百篇>之後流，風猶可徵焉。而四子者雖工富麗，去古遠甚至，其音節往往可歌，乃知子美辭固沉著，而調失流轉。(…)子美之詩，博涉世故，出於夫婦者常少，致兼雅頌，而風人之義或缺，此其調反在四子之下與！暇日爲此篇，意謂若髣髴四子，而才質猥弱，思致庸陋，故摛詞蕪素，無復統飭。姑錄之，以俟審聲者裁割焉。

31) 今眞詩乃在民間，而文人學子顧往往，爲韻言謂之詩。夫孟子謂<詩>亡然後<春秋>作者，雅也。而風者，亦遂棄而不采，不列之樂官，悲夫！(李夢陽，<詩集自序>，《中國歷代文論選》中(郭紹虞 主編)，現代社，1982, 283면)

32) 語意則直出肺肝，不加彫刻，俱男女相與之情，雖君臣朋友，亦多有託此者，以其情尤足感人也。故風出謠口，眞詩只在民間。(李開先，<市井艷詞序>，《中國歷代文論選》中，現代社，1982, 427면)

33) 이 점은 朱子를 숭상하는 조선의 맥락에서 복고파의 민가 중시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였

사실 여성을 빗대어 자신의 충절을 드러내는 것은 楚辭에서부터 이어오는 한시의 기본 전통이었다. 하지만 김만중에 이르러서 여성시가 대거 창작되면서 단순히 몇 수의 의고시를 통해 신화의 처지를 우의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명 복고파의 영향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성 정감의 풍부한 서정성과 감화력을 주목한 것이다. 동시에 김만중은 그 서정성을 도덕적 맥락에서 파악하여, 그 진실성 있는 서정성이 성정의 바름[보편적 도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경우, 김만중이 바라보는 그 여인은 도덕적 근원을 드러내는 여인이 되며, 동시에 그 여인이 표상하는 바는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이 된다. 순수한 도덕심을 발현하는 여인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 점은 사씨에게서 보편적 도덕성의 구현을 읽어낸 김춘택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곧 <사씨남정기>에 나타나는 사씨의 형상은 김만중이 그의 한시에서 이미지화한 여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김만중의 ‘여성시’에 구현된 여성의 면모는 단순히 ‘婦德’을 실천하는 여인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인고와 그리움의 여성 형상은 여자로서 부녀자의 도리를 실천하는 면모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인고와 그리움의 감성이나 여성의 형상이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도덕성을 드러내기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실적인 윤리행위인 ‘婦德’이 드러내는 타자성/불합리성은 희미해지고, 보편적인 도덕성을 구현하는 여성의 이미지만이 부각된다. 지극히 관념적인 여성형상에서 여성의 구체적 현실이 환기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성을 구현하는 그 여성의 이미지만 부각되는 것이다. 구체적 현실의 여성이라기보다는 보편적 도덕성의 구현을 환기하는 관념적인 여성의 면모만이 부각되기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김만중의 ‘여성시’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근원성을 보이는 여성 형상은 그가 개괄한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만중은 남해 유배에서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先妣貞敬夫人行狀>을 지어 각별한 추모의 정을 쏟았다. 김만중 이전 시기에 아들이 어머니의 행장을 남기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김만중은 어머니의 삶을 드러내는 데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에 나타난 면모이다. 이후 農巖·三淵 계열의 天機論, 眞詩 주장 등도 이와 관련된다. 천기론, 농암·삼연 계열의 眞詩 등에 대해서는 정길수, 『천기론의 문제』, 『한국문화』3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6, 43~68면; 김형술, 『백악시단의 진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1~297면 등 참조.

글쓰기를 지향하였다. 자신의 직접적인 발언이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생생한 실화만을 간략히 기술하는 특징을 보였다.³⁴⁾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지난 몇 년 사이 사정이 크게 변하여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지니 세상 사람들이 애달파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先人(司馬遷)이 善行을 보답하지 않는 하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였다. 비록 그렇다할지라도 대부인은 분수에 맞지 않는 복으로 평생 안락하고 부귀를 누렸지만 죽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일컬어질 것이 없는 경우를 진실로 부끄럽게 생각하였다.³⁵⁾

김만중의 모부인 윤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 김익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충성과 효행을 실천한 그 집안에 하늘이 복을 내리지 않았는지, 윤씨는 어려운 살림을 살았다. 그럼에도 윤씨는 효행, 자녀 교육, 예법의 실천 등으로 남편과 마찬가지로 道義를 실천하였다. 물론 아들 둘이 모두 대제학을 역임하고 손녀가 왕후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지만 결국 손녀와 만아들 김만기를 앞세우게 되고, 둘째 아들 김만중마저 절해고도로 유배 가게 되며, 손자들조차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이러한 윤씨의 삶의 과정을 보고 김만중은 사마천이 <伯夷列傳>에서 “천도는 옳은가 그른가?”라고 의심한 사정을 떠올린다. 도덕성을 몸소 구현하여, 도덕의 표준과 같은 삶을 실천한 어머니가 겪어야만 했던 고난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어머니는 덕행도 없으면서 부귀영화만 누리는 삶을 부끄럽게 여겼을 것이며, 실제 그녀의 삶은 도의의 실천 없이 영화만 누리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모범이었다고 한다. 부인네의 모습에서 보편적 도덕성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처럼 김만중은 ‘여성시’의 여인을 통해 보편적 도덕심의 구현을 노래하

34) <선비정경부인행장>의 특징에 관해서는 심경호, 『김만중의 율령문자, <선비정경부인행장>』, 『고전문학의 현황과 전망』, 도서출판 역락, 2002, 209~238면 참조.

35) 數年之間, 時事大變, 子孫分離, 爲世所哀. 此先民所以不能無疑於報施之天者也. 雖然, 世之享有頑福, 終身佚樂富厚, 而死之日, 人無稱焉者. 此固大夫人之所羞也.(<先妣貞敬夫人行狀>, 『서포집』권10)

였고, 어머니의 모습에서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군자의 삶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그의 문학 경향과 어머니에 투영되고 있는 이미지는 <사씨남정기>에서 사씨의 형상을 구현하는 기저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³⁶⁾ 이제 이 점에 대해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4. 사씨 형상의 특징과 의미

4.1. 도덕적 주체성의 구현과 그 한계

김만중의 ‘여성시’에서 우리는 아내의 자리에서 도덕적 근원성을 발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정감의 서정성의 근원을 도덕성의 맥락에서 이해하였기에, 그 여인의 이미지를 도덕성을 구현한 인물로 창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김만중은 先妣行狀에서 어머니를 도덕적 이상을 실천한 이상적 인물로 이해하였다. <사씨남정기>에 나타나는 사씨의 형상은 이러한 김만중의 관념이 투영되어 있는 인물이다. 다만 아내의 자리에 있는 여성에서 이상적 인간형을 간취한 것은 현실의 경험에서라기보다는 관념적으로 형성된 이미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의 이상적 여성상은 관념화된 상황을 제시하는 擬古詩에서 주로 확인된다. 예컨대 班婕妤, 梅妃, 秦羅婦, 華山畿의 여자, 銅雀妓, 四愁詩의 시적 화자 등을 노래하는 상황은 지극히 관념적이다. 따라서 거기서 그려지는 여성 이미지 역시 관념적인 성격을 띤다. 게다가 시라는 장르의 특성 상, 여성 화자 혹은 시적 화자의 대상으로서의 기술된 여성의 모습은 구체적 모습보다는 관념적 성격이 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설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작가가 지닌 이전의 이미지나 관념 등이 구체적 인물로서 작품 속에 형상화되는 순간, 그 이미지나 관념은 작품내의 구현되는 환경과 부딪히게 된다. 작가가 지닌

36) <선비정경부인행장>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사씨남정기>의 사씨 형상의 기저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선비정경부인행장>에 나타나는 이상적 부인의 이미지가 사씨 형상의 기저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김만중이 지니고 있던 이상적 부인의 이미지가 <선비정경>과 <사씨남정기> 저작의 기저로 작용하였다는 것이지, 김만중이 행장을 저작한 다음에 <사씨남정기>를 창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물에 대한 관념화된 이미지가 작품 내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구현될 때,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 내의 환경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곧 보편적 도덕성을 구현하는 이상적 인물이 여성일 경우, 보편적 도덕성의 구현을 제약하는 당대 현실의 모습이 작품 내에 나타나게 되고, 그 환경의 속의 여성 인물은 여성의 주체적 도덕성의 실현을 억압하는 현실과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곧 가부장제라는 당대의 현실 질서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아내의 자리에 있는 여성에게 도덕적 주체로서의 이상적 모습을 구현하기 어렵게 된다. 가부장제의 도덕은 도덕 결정의 기준이 여성[아내]이 아니라 가부장에게 있기에, 여성[아내]으로서는 도덕적 주체성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사씨 형상의 특징적 면모를 검토해 보자.

기본적으로 <사씨남정기>에 구현되는 사씨의 형상은 이상적 도덕성을 구현하는 면모를 보인다. 특히 여성으로서 단순히 ‘婦德’을 실천하는 면모를 넘어 당대 보편 관념인 ‘禮’를 통해서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면모가 부각된다. 단순히 여성에게 부여되는 구체적인 예의범절을 실천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禮’의 이념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는 면모가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단순히 여성에게 부여되는 범절의 차원을 넘어서 ‘禮’를 내면화하여 실천하는 인물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혼인하는 날 시아버지인 劉少師와 사씨가 나누는 문답의 장면이다. 여기서 사씨는 夫婦관계에서 아내의 도덕 원칙으로 ‘순종과 간언’을 제시한다. 특히 아내의 諫言은 君臣, 父子, 朋友 사이에서 서로 간언하는 것과 동일한, 보편적 윤리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두부인과의 대화에서는 비록 아내이지만 “마땅히 大義로써 嫌疑를 피하지 않고 간언할 것”이라고 하며, 간언의 적극적인 수행을 천명한다. 스스로 내면화한 도덕 원칙의 적극적인 실천을 천명한 것이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씨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신의 도덕 원칙(禮)을 실천하는 면모를 보인다. 유씨 가문의 지속을 위해 축첩을 권유하고, 첩이 바르지 못한 노래와 연주에 대해 ‘禮’로써 충고한다. 나아가 집안에 不仁한 동정을 들이지 말라고 남편에게 간언하고, 淫行을 저질렀다는 汚辱을 쓰자 스스로를 유폐시켜 禮를 실천하는 면모를 보인다. 劉門에서 쫓겨나서도 친정

으로 가지 않고 유문의 선영으로 향하여, 예 관념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면모를 보인다. 모두 ‘정확한’³⁷⁾ 도덕적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한 것이며, 자신의 도덕 원칙을 실천한 것이다. 劉門으로의 복귀에 있어서도 ‘禮’에 맞지 않는 복귀를 반대하고 사당에 告由한 뒤에 복귀하는 면모를 보이기까지 한다. 이처럼 사씨는 보편적 도덕관념인 ‘禮’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따라 사씨에게는 ‘보편적 도덕성[禮]’이 삶의 준거인 도덕의 실천자, 곧 여성으로서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인물의 이미지가 더욱 부여되는 것이다.

특히 사씨가 겪는 고난의 과정은 도덕적 주체성 구현에 흔들림이 없었음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씨는 비록 고난 속에서 인간적인 흔들림을 경험하지만 끝내는 마음을 다잡고 삶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면모를 보인다. 특히 이 고난은 자신의 도덕원칙 실행으로 인한 고난이기에 도덕적 주체성을 구현하였음이 더욱 강조된다. 사씨는 유씨 가문의 지속을 위해 교씨를 첩으로 맞게 하였다. 아내의 자리에서 가문의 유지를 위한 ‘도덕’을 실천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도덕 실천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 자신의 도덕적 행위가 결국 자신의 파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고난을 막을 수도 있었다. 사씨는 동청을 집안에 들이지 말기를 간언하였고, 자신에게 죄가 없으며 교씨의 모해일 것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연수에게 간언하였다. 하지만 유연수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순종의 도덕을 실천해야만 했기에 막을 수도 있는 고난을 겪어야만 하였다. 도덕의 실천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도덕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 사씨의 면모에서 더욱더 도덕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사씨의 면모가 부각되는 것이다.

물론 때로 고난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였다. 懷沙亭에서의 모습이 그러하다. 사씨는 회사정에서 자결하려고 하면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행동하였지만 끝내 고난을 벗어날 어떤 탈주로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천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二妃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기도 하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二妃의 설명은 꿈속에서 들은 말일 뿐이다. 비록 꿈에서 깬 뒤, 직접 황릉묘의 존

37) 여기서 언급하는 정확한 도덕 판단은 서술자의 시각에서 기술된 것이다. 따라서 작은마음 표를 사용하였다. 이하 ‘주체적’도 같은 의미이다.

재를 보고 그 현실성을 확인하지만, 여전히 사씨는 꿈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고난 속에서 천도를 여전히 의심한 것이다. 하지만 사씨가 水月庵에서 자신이 쓴 ‘관음찬’을 만남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삶의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도덕적 주체성을 실현한 삶이 확인되는 것이다. 사씨가 지은 ‘관음찬’에서 관음을 찬양한 이유는 그녀가 도의를 실천하였기 때문이었다. 남해고도에 홀로 서있는 관음의 그림에 대해 사씨는 비록 절해고도에 홀로 있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면서, 당신[관음]의 삶은 오로지 도의를 실천한 삶이었음을 찬양하였던 것이다.³⁸⁾ 사실 <사씨남정기> 작품 곳곳에 사씨와 관음보살이 동일한 존재임이 암시된다. 그렇다면 사씨가 찬양한 ‘관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도의를 실천한 삶이었다. 여기서 사씨는 스스로 찬양한 삶, 곧 어떤 상황에서도 道義를 실천한 삶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 주체로서의 사씨의 삶은 여기서 최고조에 이른다. 아내로서 스스로 설정한 도덕적 원칙에 따라 삶을 구현하였고, 그 원칙에 의해 고난으로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결국 삶의 의미는 도의의 실천에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이 바라던 도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씨는 객관적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이 내면화한 도덕적 원칙을 끝까지 구현하는 이상적 도덕적 주체로 형상화된다. 아내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도덕원칙을 내면화하고 있는 모습, 비록 그 도덕적 원칙[道義]이 자신의 삶을 훼손하더라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도덕원칙을 구현하는 모습이 뚜렷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씨의 형상은 앞서 검토한 김만중의 ‘여성시’와 행장 속에 구현된 어머니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여성시’에서 여성이 보편적 도덕심을 구현하는 모습을 노래하였고, 어머니를 통해 여성으로 군자의 도덕을 실현하는 면모를 구현하였으며, <사씨남정기>에서 여성인 사씨가 이상적 도덕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던 것이다. 곧 여성 정감에서 이상적 도덕심의 구현을 노래하고, 어머니의 삶에 대한 기록에서 이상적 주체성을 실현하는 군자의 모습을 구현한 것은 <사씨남정기>의 사씨가 여성만

38) 古之節婦，斷髮毀體，離群絕世，惟義之取。(〈白蘋洲重逢記〉,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165면)

이 아닌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도덕 주체성을 실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과 동래인 것이다. 그런데 사씨의 삶의 여정이 반드시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은폐된 문제가 있다. 사씨가 실천한 ‘도덕적 원칙’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이다. <사씨남정기>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는 사씨가 懷沙亭에서 통곡하는 장면이다. 충신이면서도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옛 열사의 삶과 사씨의 삶이 겹쳐지면서 비장미가 극대화된다. 이 장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도덕적 주체성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씨의 意氣에 절절히 감동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설 전체의 맥락에서 되짚어 본다면 다르게 읽힌다. 만약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인이 쫓겨나 고난 끝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장면을 詩化한다면, 그 여인의 아픔을 동일시하고 그 의기에 감동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에 형상화된 여인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해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 그 장면은 전혀 다르게 읽히게 된다. 버림받은 여성으로서 회사정 앞에서 한탄하는 여인의 모습은 충분히 그 정당성, 나아가 보편적인 도덕성을 환기할 수 있지만, 사씨의 삶의 여정과 그가 실천한 ‘禮’의 내용이 소설에 나타나는 이상 그 도덕성의 모순적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주체성이 구현되려면 도덕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타율적이지 않은 주체성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씨의 도덕 원칙인 ‘순종과 간언의 원칙’에서 아내가 순종과 간언의 대립 상황에서 결국 순종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주체성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부부가 아닌 君臣의 윤리의 경우 신하의 자리에 순종만이 강요되지 않는 進退의 윤리를 마련함으로써 순종을 넘어서는 주체의 영역을 만들 수 있지만, 가장장적 부부 윤리에서 아내의 자리에는 진퇴의 윤리와 같은 주체의 영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가부장제 내의 아내의 자리에서는 결코 진정한 주체성이 실현될 수 없다. 결국 <사씨남정기>는 단순히 윤리적인 아내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자리에서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면모를 형상화하고 있는[혹은 형상화하려고 한] 작품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자리에서 추구되는 보편적 주체성의 모순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도덕 원칙’의 내면화, ② 내면화된 ‘도덕 원칙’의 실천, ③ 현실적 고난 속에서도 ‘도덕 원칙’의 고수

와 자기 확인'이라는 ①~③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 주체성의 실현 과정을 형상화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도덕 원칙' 자체의 부당성이 동시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 '도덕적 주체성' 지닌 모순성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이처럼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이상적 인물로서 아내를 형상화하려는 순간 당대 가부장제의 현실이 반영되어 그 '여성주체성'의 모순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는 가부장제 너머를 사유하지 못한, 아니 사유할 수 없었던 김만중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김만중은 동시에 이러한 모순을 가능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음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의 관음찬 모티브는 한편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현실적인 고난이나 성공에 관계없이 '도덕'을 실천한 삶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지만³⁹⁾ 동시에 사씨의 도덕 원칙의 문제를 희석하는 역할을 한다. 사씨가 '관음찬'에서 관음의 삶이 道義를 실현한 삶이라 칭송하고, 다시 자신의 삶이 바로 스스로 찬양했던 道義를 실천한 삶을 확인하는 순간, 사씨가 구체적으로 실천한 '도의'의 내용이 지닌 모순이 희석된다. '도의의 실천이었다'는 사실만 부각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음찬'은 사씨에게 관음보살의 형상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씨의 삶은 종교적 求道者의 면모를 띠게 된다. 구도자는 현실적인 고난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실천하는 자이기에, 구도자가 겪는 고난의 경우, 그 고난의 현실적 문제성은 부각되지 않는다. 고난은 구도자의 형상을 부각시키는 기능에 종속되기에, 고난 자체의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구도자의 모습을 띤 사씨의 형상을 통해 사씨가 겪은 고난의 의미는 희석되고, 오직 고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도의'를 실천한 숭고한 면모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김만중이 '관음찬'을 통해 사씨가 실천한 '도덕 원칙'의 문제점을 희석시킨 것은 단순히 기존 규범의 준수하는 여성이 아니라 이상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이는 가부장제 너머를 꿈꾸지 못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9) 류준경, 『여성 주체성을 향한 여정』, 『어문연구』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171~197면.

5. 사씨 형상의 변주 - 사씨와 남채봉의 거리

김춘택의 <변언남정기인>에서 전언하듯이, 김만중은 부녀자의 교화를 위해서 <사씨남정기>를 창작하였다. 국문소설이 널리 향유되던 상황이었기에, 교화를 위하여 국문소설로 이상적인 부녀자의 모습을 구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김만중은 부녀자 교화를 위해 이상적인 부녀자의 모습을 형상화하려 하였지만, '여성시' 창작에서 확인되는 문학 관념이 투영되어 이상적 여성을 넘어 이상적 인간, 곧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인물의 성격이 부여되었다. 비록 당대 현실이 반영되어 한편으로 가부장제 하에서 구현되는 여성 주체성의 모순적 성격이 함께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여정을 뚜렷이 부각하였던 것이다. 김춘택은 바로 그 점을 인식하였기에, <사씨남정기>를 여성교화를 위한 국문소설의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없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사씨의 모습에서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이상적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씨의 형상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되는 <창선감의록>의 남채봉의 형상에서는 이런 면모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 김만중이 구현하고 김춘택이 주목한 사씨의 형상과 당대 소설사와의 관련을 <창선감의록>의 남채봉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창선감의록>은 흔히 <사씨남정기>와 함께 거론된다. 창작시기, 작가의 성격, 주제, 표기수단, 작품의 인기 등에서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작품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된다. 선인의 改過와 악인의 징치를 골격으로 하는 전반적인 구성의 틀에서부터 인물설정과 배치 등 세부적인 구성, 나아가 <사씨남정기>의 二妃와 <창선감의록>의 仙娥가 天道에 대한 의문에 대해 해명하는 발언 등에서 보이는 서술내용의 일치까지 그 유사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작품이 선행하여, 다른 작품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선후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실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선후문제는 논란이 분분하여⁴⁰⁾ 아직 논의가 수렴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필자는 <사씨남정

40)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선후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한 정리수는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창작동기와 시기 논란』, 『배달말』44, 2009, 222~226면 참조.

기>가 선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두 작품의 선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짚어야 할 지점이 많기에 여기서는 사씨 형상과 관련된 논의 전개를 위하여, 두 작품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한 예 한 가지만 들도록 한다. 그것은 바로 관음보살 현몽 부분이다.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에 모두 관음보살이 현몽하여 여주인공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는 분명한 작품이 다른 작품을 참조한 것이다.

먼저 <창선감의록>을 살펴보자. 남채봉은 조월향이 준 독약을 먹고 죽게 되었다가, 여승 청원의 도움으로 소생하게 된다. 관음보살의 지시로 남채봉을 소생시킨 청원은 남은 액운을 피하기 위해 蜀 땅으로 함께 가기를 권유한다. 하지만 花門의 며느리인 남채봉이 그냥 청원을 쫓아 촉 땅으로 갈 수 없었다. 비록 고난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인을 가출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달아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밤 관음보살이 남채봉의 꿈에 나타나 지시하였기에, 남채봉은 결국 청원을 따라 촉 땅으로 가게 된다. 현몽을 통한 관음보살의 계시는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었기에, 남채봉은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남어사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관음보살의 계시를 다시 언급하기까지 한다. 실제 기술된 분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작자는 이를 주요한 사건으로 다룬 것이다. 이처럼 관음보살의 현몽을 통해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씨남정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청이 두부인의 필적을 위조하여 냉진으로 하여금 사씨를 납치·검탈하려 할 때, 유소사가 사씨의 꿈에 나타나 위기를 알려주고 남쪽으로 피신할 것을 계시한다. 그리고 동시에 6년 뒤 4월 15일 밤에 백빈주에서 배를 타고 기다렸다가 위급한 사람을 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런데 설사 구원이 목적이라고 해도 여자가 늦은 밤에 배를 타고 나가 외간남자를 만나는 것은 사대부가의 여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김만중은 사씨가 그 부탁을 잊은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김춘택은 한역을 하면서 꿈속에서의 부탁이라고 해도 유소사의 부탁을 사씨가 잊어버리는 것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외간 남자를 구하기 위해 밤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것도 어색하여 묘회의 관음보살 현몽을 추가하였다.⁴¹⁾ 사씨가 꿈속에서 부탁한

41) 원본계열과 김춘택 한역본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의 범례(謝氏不知當濟者何人, 乘舟以待,

유소사의 말을 잊지는 않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외간남자를 구하러 나가는 일을 주저하자, 묘희의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재삼 당부하는 것으로 개작한 것이다. 곧 관음보살의 현몽을 통해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김춘택의 개작과정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처럼 김춘택이 개작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영향관계가 확인되는 이상,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선후관계는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곧 <창선감의록>은 <사씨남정기>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인 것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씨 형상의 변주이다. 기본적으로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이상적인 여인으로 형상화된다. 서술자의 시각에서 뿐 아니라, 유소사와 같이 도덕적 표준이 되는 작중 인물의 시각에서도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인물이다. 이러한 점은 <창선감의록>의 남채봉에게도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창선감의록>에서 여성 주역들, 특히 화진과 윤여옥의 부인들은 모두 미모와 재주, 덕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나타난다. 어려서부터 도덕적 판단이 명확하고⁴²⁾ 뛰어난 미모에 문학적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주역들 중에서도 남채봉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여성으로 형상화된다.⁴³⁾ <창선감의록>의 가장 이상적인 여성인물이 바로 남채봉인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여성인 남채봉을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사씨남정기>의 이상적 여성인 사씨와 관련된 화소가 그대로 차용된다. 묘희의 부탁으로 사씨가 '관음찬'을 작성한 것은 청원의 부탁으로 남부인이 관음화상도를 그리는 것으로 차용되고, 관음보살의 계시로 묘희가 사씨를 구원하는 것은 관음보살의 계시로 청원이 남채봉을 구원하는 것으로 차용된다. 특히 사씨와 낭낭이 나누는 문답의 내용은 남채봉과 낭낭의 시녀 仙娥의 문답에서 그대로 활용된다. 곧 <창선감의

或涉自輕, 故添以妙喜夢一款 및 이금희, 앞의 책 ; 부세, 앞의 논문 ; 이래중, 앞의 논문 참조.

42) 아홉 살인 남채봉이 어머니 한부인이 관음보살을 그리려 할 때, 바른 몸가짐을 위해 재계를 권유하는 장면이나, 역시 아홉 살인 진채경이 고난에 처한 남채봉을 陳門으로 맞이할 때, 어머니가 시비에게 전한 말을 고쳐주는 부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진채경이 세상에 남채봉과 같은 사람은 다시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이나, 진채경의 시비 운섬이 백소저의 자태를 보고 남채봉보다는 못하지만 윤옥화에 비금간다고 언급한 부분, 그리고 작품 말미에서 젊은 부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서술자가 자태와 몸가짐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남채봉이라고 언급하는 부분 등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록>의 남채봉의 형상화 과정에서 <사씨남정기>의 사씨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남채봉의 형상에서 사씨가 실현하는 도덕적 주체성의 면모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남채봉의 경우에는 내면화된 도덕원칙이나, 그 도덕 원칙의 실천과정이 형상화되지 않았다. 婦德을 지닌 남채봉의 면모는 부각되지만, 婦德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보편적 도덕성을 구현하는 면모가 부각되지는 않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채봉의 삶은 운명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운명의 형식이라도 그 속에 주체적 도덕성을 구현하는 과정이 뚜렷하다면 도덕적 주체성이 실현되는 면모가 나타날 것인데, 남채봉의 삶의 여정에서는 그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부모와 이별과 고난, 陳夫人의 구원과 윤혁의 收養, 화진과의 결연, 조녀의 음모로 인한 죽음, 청원에 의한 구원과 피신, 부모 재회와 영광스런 복귀 등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유가적 이념을 이탈하는 경우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시에 유가적 이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면모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씨의 경우, 유소사와의 문답을 통해 내면화된 도덕원칙을 제시하고, 나아가 아내의 자리에서 축첩을 권유하고, 동청을 반대하는 간언을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⁴⁴⁾ 쫓겨나도 선영으로 가는 면모 등을 통해 자신의 도덕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채봉의 경우 예의범절에 뛰어난 면모는 부각되고 있지만, 도덕원칙을 내면화하거나, 도덕원칙의 주체적 구현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씨의 경우 도덕적 보편성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전형인 군자의 면모가 나타났다면, 남채봉의 경우 심지가 굳고 깨끗한 면모를 통해 남성적인 면모를 드러낼 뿐이었다.⁴⁵⁾ 여성으로서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데가 남성적인 강직함까지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지만, 보편적 도덕성을 환기하는 이상적 인물로의 고양은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다.⁴⁶⁾

44)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동시에 유연수의 부당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45) 남채봉의 깨끗한 면모는 윤옥화와 달리 趙女의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靑玉佩를 주지 않는 모습이나 독약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46) 남채봉과 사씨의 삶의 모습이 婦德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일견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사씨의 경우는 자신의 도덕적 원칙이 제시되고 그 도덕적 원칙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시에 스스로 자신이 도덕적으로 찬양한 삶을 확인하는 구도를 보임으로써, 도덕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형식’이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남채봉의 경우 예의에 맞게 행동하는 면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禮’의 내면화 과정이나 예의 구현을

이러한 사실은 김만중이 형상화한, 여성으로서 여성의 범절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한 면모가 <창선감의록>에 지속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다. 비록 남채봉의 형상이 사씨의 형상을 차용하여 이상적인 여인의 면모를 드러내었지만, 사씨의 이상적 면모가 담지한 여성을 뛰어넘는 보편적 주체성을 차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김춘택의 서문을 검토한 자리에서 논의하였듯이 김춘택이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한 이유는 사씨의 형상에서 여성 교화를 위한 여성도덕 이상의 보편적 도덕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선감의록>은 사씨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남채봉을 그렸지만, 사씨가 담지하고 있는 보편적 주체성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면모는 18세기 향촌 사대부인 礪溪 李養吾(1737~1811)가 <사씨남정기>를 이해한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김춘택의 <변언남정기>에서는 사씨를 통해서 보편적 윤리성을 구현한 점을 주목하였는데, 이양오의 <謝氏南征記後敘>에서는 더 이상 이 점을 주목하지 않는다. 다만 유연수의 改過를 특기하고 있을 뿐이다. 김춘택이 확인한 사씨 삶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사대부층에게 전유되지 못하고, 여성의 윤리를 실현한 여인의 모습으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6. 나가며

지금까지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17세기 소설사 전변의 한 국면을 살펴보았다. 김만중에 의해 국문으로 창작되었다가 김춘택에 의해 다시 한문으로 번역된 과정과 그 번역의 과정에서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국문/한문, 여성/남성, 비속/전아 등의 얽힘을 검토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국문/한문, 여성/남성, 비속/전아의 개념을 사용하여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먼저 부녀자들이 ‘비속’한 국문소설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중은

위한 적극적 실천 과정 등이 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강력한 면모를 갖춘 캐릭터에 머물 뿐 도덕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지는 않았다.

부녀자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사씨남정기>를 창작하였다. 여성들이 향유하던 국문소설에 남성의 의도가 결합되어 새로운 국문소설이 출현한 것이다. 동시에 이 국문소설은 상층 남성의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전의 비속한 국문소설과 달리 문체와 내용면에서 전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김만중이라는 작가의 문화적 배경과 당대 시대상, 그리고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씨남정기>는 여성 교화라는 상층 남성의 의도를 실현하는 국문소설 이상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 부녀자 교화를 위해 모범적인 부녀자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사씨가 모범적인 부녀자를 넘어서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담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김만중의 한문학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김만중은 그의 '여성시'에서 버려진 여성 혹은 입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정감에서 가장 근원적인 도덕심이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동일한 맥락에서 소설 속의 부녀자의 형상에서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을 구현하는 면모를 형상화하였다. 그 결과 단순히 예의범절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여인을 넘어서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이상적 인간형이 형상화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여성 인물 형상의 창출에 한문학[여성시] 전통 속에서 마련된 여성의 이미지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사씨남정기>의 사씨가 담지한 이상적 면모로 인해, 김춘택은 <사씨남정기>를 여성을 위한 국문소설로만 남겨둘 수 없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남성에 의한, 여성 교화를 위한 작품이 남성에 의한 남성의 세계인식을 표현한 작품으로 전변한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여성/남성'의 관계로 정리하면 <사씨남정기>의 창작은 기본적으로 여성문화[국문소설]에 대한 남성의 이데올로기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문학적 전통 속의 '여성'이 작동하여 여성의 교화만이 아니라, 남성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로 의미가 확대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인물 형상 속에는 은폐된 문제가 있다. 자율적 판단에 따른 도덕 원칙의 내면화와 그 원칙의 주체적 구현 과정이 드러남으로써 도덕적 주체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덕 원칙의 내용이 은폐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 너머를 꿈꿀 수 없었던 김만중으로서는 아내를 통한 보편적 주체성 구현을 이룩할 수 없었기에, 보편적 주체성의 모순성 역

시 작품에 구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 상 현실 속 여성의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에, 여성의 자리에서 이상적인 도덕 주체의 구현하려는 김만중의 의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상의 과정은 소설 양식의 특성으로 남성[김만중]의 관념적인 ‘여성’과 현실 속의 여성 사이의 거리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김만중이 형상화하고 김춘택이 강화한 이상적 도덕 주체인 사씨의 형상은 김춘택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통속적으로 향유되었다.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한 삶의 의미보다는 지배이념에 충실한 삶을 구현한 인물로 이해되었다. 사씨의 형상의 영향이 강하게 감지되는 <창선감의록>의 남채봉과 비교할 경우, 남채봉의 형상에서 보편적 주체의 면모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18세기 말 상층사대부의 <사씨남정기> 향유기록에서도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한 사씨의 면모를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歐陽修, <雜傳序>, 《新五代史》 권54, 北京:中華書局, 1997.
金萬重, 『西浦集』, 『한국문집총간』148.
김병국·최재남·정운채 譯, 『西浦年譜』, 서울대출판부, 1992.
金鎭圭, 『竹泉集』, 『한국문집총간』174.
金春澤, 『北軒集』, 『한국문집총간』185.
李開先, <市井艷詞序>, 『中國歷代文論選』中, 現代社, 1982.
李夢陽, <詩集自序>, 『中國歷代文論選』中(郭紹虞 主編), 現代社, 1982.
何景明, <明月篇竝序>, 『明詩別裁集』(沈德潛 撰), 上海古籍出版社, 1979.

2. 단행본

- 이금희, 『<사씨남정기> 이본 연구』, 반도출판사, 1991.
정규복, 『<구운몽>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연구』, 월인, 1998.

3. 논문

- 강명관, 「<서포만필>의 민족어 문학론 비판」, 『한문학보』18, 우리한문학회, 2008, 491~494면.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12, 2001, 135~142면.
김무조, 「서포의 漢詩考-특히 謫中作을 중심으로」, 『우현 정중환박사 환력기념논총』, 1974, 531~551면.
김병국, 「서포의 김만중의 시세계;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1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49~87면.
김형술, 「백약시단의 진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1~297면.
류준경, 「여성 주체성을 향한 여정」, 『어문연구』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171~197면.
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고소설연구』6, 1998, 217~245면.
부세 다니엘, 「<남정기> 한문본고」, 『백영 정병욱 환갑 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1982, 660~673면.
손찬식, 「김만중의 유배시에 표상된 정서」, 『어문연구』32, 한국어문연구학회, 1999,

241~268면.

-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241~270면.
- 신재홍, 「〈사씨남정기〉의 선악구도」, 『한국문학연구』2,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 175~217면.
- 심경호, 「김만중의 읍혈문자, <선비정경부인행장>」, 『고전문학의 현황과 전망』, 도서출판 역락, 2002, 209~238면.
- 안대회, 「17세기 비평사의 시각에서 본 김만중의 복고주의문학론」, 『민족문학사연구』20, 민족문학사연구학회, 2002, 8~28면.
- 안대회, 「18세기 여성화자시 창작의 활성화와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 2002, 130~131면.
- 윤호진, 「김만중의 여성시에 드러난 군신의 형상」, 『연민학지』14, 2010, 359면.
- 이가원, 「〈九雲夢〉評考」, 『韓文學研究』, 탐구당, 1969, 182~224면.
- 이래중,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19, 대동한문학회, 2003, 369~399면.
- 이래중, 「〈창선감의록〉 이본고」, 『승실어문』10, 1993, 237~267면.
-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인식」, 『배달말』27, 배달말학회, 2000, 371~396면.
-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창작동기와 시기 논란」, 『배달말』44, 2009, 222~226면.
-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 박사논문, 2003.
- 임평모, 「김만중의 남해 적중시와 죽대정시」, 『문학과 창작』42, 문학아카데미, 1999, 158~166면.
- 전형대, 「김만중의 한시-그의 자연시를 중심으로-」, 『김만중연구』, 새문사, 1983.
- 정길수, 「〈구운몽〉 원전의 탐색」, 『고소설연구』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5~33면.
- 정길수, 「〈남정기〉의 창작 동기와 작가 문제」, 『인문학연구』43집, 조선대인문학연구소, 2012, 262면.
- 정길수, 「천기론의 문제」, 『한국문화』3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6, 43~68면.
- 지연숙, 「〈구운몽〉 텍스트 연구」, 『한국문학과이론과 비평』1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1, 26~62면.
- 지연숙, 「〈사씨남정기〉 비김준택 계열 연구」, 『고소설연구』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39~71면.
-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박사논문, 1992, 1~284면.

An aspect of the shifts and changes in history of novel in 17th century

Ryu, Jun-kyu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quiry an aspect of the shifts and changes in history of novel in 17th century.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could know as follows.

Kim Man-jung 金萬重 wrote *Sasi-Namjung-gi* 謝氏南征記 for the purpose of enlightenment of females. By the way he formalized the female character who incarnated moral universality not the submissive female character under the influence of tradition of composition of classical Chinese poem. This is why Kim Chun-taik 金春澤 translated *Sasi-Namjung-gi* 謝氏南征記 to classical Chinese. As a result, this work had been written for the purpose of enlightenment of females but the meaning of this work became enlarged as the work for males themselves. But the character of Sa Jung-ok 謝貞玉, who incarnated moral universality, had been enjoyed vulgarly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Kim Chun-taik 金春澤.

keywords: *Sasi-Namjung-gi* 謝氏南征記, Kim Man-jung 金萬重, Kim Chun-taik 金春澤, female and male, Korean and classical Chinese, vulgarness and elegance

접수일자: 2015. 3. 31. 심사기간: 2015. 3. 31.~2015. 5. 10. 게재결정: 2015. 5. 10.
